

退溪의 政治道義 실현과 聖君의 역할**

-聖學十圖를 중심으로-

柳 星 烈*

● 目 次 ●

I. 序 論	2. 居敬과 窮理의 공부와 실천
II. 退溪 聖學思想의 배경과 형성	IV. 聖君의 역할과 이상정치
1. 시대적 배경	1. 天理의 순응과 政治社會의 질서
2. 聖學思想의 근본원리	2. 憂民論
III. 聖學十圖에 나타난 聖君論과 實踐論	3. 聖君의 修德과 정치적 교화
1. 聖學十圖의 修己治人으로서의 聖君	V. 結論: 退溪의 政治道義 실현과 그 현대적 의의

I. 序 論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는 형식적인 면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과정이 있다. 정치사회의 형식면이란 정치구조, 사회신분제, 경제제도 등이며, 이러한 制度的 要素는 그 형성과정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思考·信念 내지 보다 체계적인 理論이나 主張 혹은 일관성 있는 思想을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한 시대의 思想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思想의 원인과 결과 및 그 思想을 품었던 개인들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²⁾ 퇴계도

* 목포대 (정치학) 강사

**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퇴계학 연구』 제10호(1996) 게재논문

이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퇴계의 생존시는 정치체제·사회경제제도·사고의 방향 및 인간의 가치관 등이 오늘날과 달랐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士禍가 잇달아 일어났고, 黨爭의 萌芽가 움트는 혼란한 시대였다. 또한 유교에 의한 윤리가 지배하던 폐쇄적·봉건적 사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사회가 처한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양상이 그 速度와 濃度는 다를지라도 전환기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퇴계의 政治道義 實現을 위한 聖君의 役割에서 그 代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퇴계가 聖人·聖君像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聖學十圖에서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聖學十圖는 退溪思想의 結晶體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理想으로서의 정치를 상징함에 示唆하는 바 크다고 본다. 이같은 퇴계의 思想은 憂國之念에 기인하여 순수정치적 발현을 염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새로운 君主에 대한 자신의 최고임무로 생각하여 드러낸 최후의 적극적 태도로도 평가된다.

퇴계는 통치권력의 근거를 ‘합당한 위치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라’는 하늘의 명령, 즉 天命에서 구한다.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고 民生을 보살피 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퇴계는 이러한 실천은 聖君이 率先垂範을 보여야 한다고 聖學十圖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治者의 修德과 被治者의 敎化를 중시함으로써 정치사회적 질서의 근본원리를 인간의 內面的인 道德性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理의 순수한 면을 변질시킬 수 있는 惡으로부터의 격리가 퇴계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當時代의 價值的 顛倒를 바로 잡고자 하는 그의 신념이 구체화 된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지도자들의 道德性 喪失과 蔓延된 不正·腐敗는 결국 국민들의 政治不信을 가중시키고, 政治發展의 沮

2) 車河淳, ‘思想史의 課題와 研究方法’, 『歷史學報』 50.51輯, (서울: 歷史學會, 1971), p. 181.

害要素로 작용해 왔다. 이것은 정치의 목적보다 수단이 앞선 인간의 政治化에서 연유되는 현대정치의 短處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퇴계가 주장하는 정치의 人間化, 즉 정치윤리를 바로잡아 정치사회의 紀綱을 확립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정치가 당면한 절실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의 정치현실을 診斷하고 投藥하면서 그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피할 수 없는 責務라 하겠다.

그러한 政治道義 實現에 대한 퇴계의 절실한 바램은 聖學十圖의 進上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열폭의 그림으로 된 비교적 간단한 글이지만, 한 思想家의 思想이 濃縮된 壓卷이므로 이해는 그렇게 쉽지 않다. 단 궁극적으로는 聖君之治의 표현을 위한 政治的 意義가 전제되어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君主의 治道問題에 대해 聖學十圖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觀點과 內容을 살피며 퇴계 政治道義論의 現代的 適用可能性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 聖君之治 問題는 최고통치자의 정치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韓國政治思想 中の 中樞的 性格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정치사상의 전반적인 체계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현실과 文獻處理에 따른 能力과 限界에 문제점이 적지 않음으로 퇴계의 政治道義論 研究가 여의치 않음을 느끼지 못하는 바 아니나, 이것이 한국정치사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自任하면서 本 研究를 전개하려 한다.

II. 退溪 聖學思想의 背景과 形成

1. 時代的 背景

퇴계는 1501년(연산군 7년)에 나서, 선조 3년에 他界할 때까지 다섯 임금 가운데 네 임금에게 出仕하였지만, 그의 進退와 學問의 향방은 이미 연산군 시대의 戊午土禍와 甲子土禍속에서 찾을 수 있다. 연산군

의 暴政으로 정치적 무질서가 惹起됨으로써 국가 질서 자체가 붕괴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적당한 표현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극심한 혼란은 새로운 정치판도의 場이기도 했다. 소수의 武人勢力을 중심으로 한 政變으로 연산군이 축출되고 이른바 中宗反正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정치판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³⁾ 그러나 고도의 道學的인 정치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성숙하지 못하여 趙光祖의 道學的 王道政治는 실패하게 되었다. 이때 퇴계는 19세로 性理學에 열중하고 있었다.

퇴계는 그 一生동안 이른바 四大士禍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에 처한 퇴계는 어지러운 사회질서를 君王과 兩班官僚가 지배하는 정치사회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범하는 모든 非理와 不仁·不義와 無知는 모두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不誠實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필연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 敎化 및 改善의 原理로서 敬을 信奉하게 되었던 것이다. 自己修養이 깊어질수록 戊午·甲子士禍나 己卯士禍 등을 통해 인식하는 현실정치와 학문적 지향을 통해 실현시켜야 할 理想世界와의 乖離가 너무 큰 데에 대한 정신적 갈등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⁴⁾

學問을 하는 것이 다만 一心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實生活에서 日用平常之理를 구현함으로써 理想과 現實을 정치적으로 合一하는 과정에서 被禍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는 義와 利가 상충하고 正과 邪가 갈등하는 정치적 현실에 注意하였다. 不純한 政情에 대해 퇴계는 불만스러워도 직접 대립하여 이겨나가려는 급진성을 보이지 않았다. 소극적이라 할 정도로 신중성을 잃지 않았다. 정면에서 對立·抗爭함으로써 이를 극복코자 하기 보다는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추구하고 本源的인 世界를 찾아서 그 實狀을 구현코자 하였다.⁵⁾

3) 金榮國外, 「韓國政治思想」, (서울: 博英社, 1991), p.38.

4) 이와 관련한 退溪의 生涯에 대해서는 李秉傑, 「退溪 李滉의 家系와 生涯」, 「退溪學 研究」1輯, (慶尙北道, 1973), pp.99-116참조.

이러한 퇴계의 자세는 그로 하여금 金安老의 獨斷속에서도 入仕하기를 주저치 않게 하였고, 또 조용히 仕宦·講論하면서 스스로의 학문과 경륜을 넓혀 가게 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의 가장 위대한 學的 業績으로 지적되는 四端七情說이 바로 올바른 행위와 좋은 행위가 누구에게나 가능함을 입증하는 철학적 주장이었던 것도 한갓 우연한 일이 아니다.⁶⁾

퇴계는 政界에 참여중에도 수십차례의 辭職書를 올린다. 그 이유로서 身病·能力不足·老弱·廉恥 問題 등을 들고 있다. 물론 病弱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표면상의 그런 이유는 누구나 흔히 내세울 수 있는 내용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말 못할 속사정이 더욱 문제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學問과 時義에 이해가 깊어감에 따라 戊午·甲子의 土禍며 己卯의 被禍가 더욱 그의 腦裡를 압박하였으리라 믿어진다.

한편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年老할수록 깊어지는 朱子學 研究에의 學問 愛好熱이며,⁷⁾ 실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적 고민거리의 하나인 明宗朝의 外戚政治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이다. 것처럼 진정한 학문 연구는 정치현실에 敗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啓導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⁸⁾ 그리하여 퇴계가 68세 때 올린 聖學十圖에는 聖君政治의 要諦가 실려 있으며, 어린 宣祖의 政治道義 定立을 추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퇴계의 시대가 朝鮮朝 兩班官僚의 대립과 항쟁·분열의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의 학문의 역사적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君主國家의 체제를 뛰어

5) 李東俊, '十六世紀 韓國性理學派의 歷史意識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159-160.

6) 韓榮國, '退溪 李滉의 時政論考', 「韓國의 哲學」 創刊號, (大邱: 慶北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73), p.57.

7)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서울: 瑞文文庫, 1973), pp.54-57.

8) 趙南旭, '李退溪의 治道觀 研究', 「教育論集」 10輯, (釜山大學校 師範大學, 1983), p.283.

넘을 수 없는 조건아래서는 王道政治로써 理想을 삼고 聖인이 임금이 되어 賢人들을 구해서 治國을 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퇴계는 儒學의 思想과 敎育을 받고 주자학을 돈독히 지켜 儒家的인 사람의 다스림을 뛰어 넘을 수 없었기에 나라 다스림을 聖君과 賢相에게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뛰어 넘을 수 없었던 상황이 퇴계의 政治思想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었다.

2. 聖學思想의 根本原理

1) 天人合一思想

인간은 누구나 天人合一의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모습을 점차 잃어가는 것으로 본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유지하는 데서 바람직한 삶은 이루어지고 이 과제가 인간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天 존재를 현실에서 비쳐주는 거울로서 인간 존재의 새로운 발견이 필요하며 天과 人間과의 관계를 통하여 天 존재를 해명할 수 있다. 즉 天과 人間의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서로의 의미를 밝혀주는 깊은 상관관계가 전제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氣質의 차이에 따른 인간의 구별은 天人關係 사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顏子の 仁에서 어긋나지 않는 마음과 治國의 사업이 모두 그 가운데에 있으며, 曾子の 이른바 忠恕의 道와 傳道의 책임이 다 一身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다. 畏敬의 자세가 일상생활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中和位育의 효과를 이룰 수 있으며, 德行이 인륜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天人合一의 妙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⁹⁾ 따라서 天人關係는 理念的으로는 合一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현상에서는 항상 合一하지는 않으며 合一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의 인식이 제기된다. 여기서 인간

9) 「退溪全書」一, 進聖學十圖筭, “則顏子之心不違仁 而爲邦之業在其中 曾子之忠恕一貫 而傳道之責在其身 畏敬不離乎日用 而中和位育之功可教 德行不外乎彝倫 而天地合一之妙斯得矣.”, 197면下-198면上

에게는 天理와의 合一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적 규범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 修身하지 않을 수 없고 修身하려면 事親하고 事親하려면 우리 人性의 본질에 대한 깊은 思索을 통하여 인성의 도덕 생명의 근거인 天을 알지 않을 수 없게 된다.”¹⁰⁾ 나아가 合一의 방법으로서 天理를 밝게 알아야 하는 인식에 근거해서 끝까지 실현해 가야 한다는 실천의 修養過程이 요구된다 하겠다.¹¹⁾ 天은 人事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天人合一의 인간관은 天을 인간속에 內在시켜서 主觀化하는 思想이라 할 수 있다. 天이 인간에게 내재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주체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며, 인간을 떠나서는 天의 존재여부가 무의미하게 되는 인간주의 思想인 것이다.

그런데 人間은 天과 근본적으로 合一되지만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매 순간 天理와 합치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는 것은 바로 육체로 인한 氣質의 제약 때문이다. 그러나 부단히 진리를 탐구하고 도덕적 실천을 지속함으로써 인간의 육체로 인한 사사로운 욕망과 주관적 편향을 극복하고 공명정대하게 우주자연과 하나가 된다. 이때의 자유로운 삶과 理想的 仁愛의 정치실현의 주체가 聖君이다. 따라서 君主가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主役이 되기 위해서는 天理와 人道를 궁구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를 經綸하는 大經을 설계하고 국가를 化成시키는 大本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퇴계는 聖學十圖 序文에서 “진실을 오래도록 쌓고 노력하면 저절로 마음이 眞理와 더불어 서로 涵養되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融會貫通하게 되고 익히는 노력과 일이 서로 익숙하게 되어 점차 평탄하고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¹²⁾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

10) 「中庸」, “故君子不可以不修身 思修身 不可以不事親 思事親 不可以不知人 思知人 不可以不知天”

11) 尹絲淳, ‘朝鮮朝 理氣論의 發達’, 「石堂論叢」16輯, (大邱: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0), p.304.

12) 「退溪全書」一, 進聖學十圖筭, “尤當自身而益勵 至於積眞之多用力之久 自然心與理相涵 而不覺其融會貫通 習與事相熟而漸見其坦泰安履 畏敬不離乎日用 而中和位育之功可致 德行不外乎彝倫 而天人合一之妙斯得矣”, 197면下-198면上.

은 居敬·窮理라는 內外併進의 공부를 통해서 인간과 만물의 本性을 파악하고 心性을 수양하여 聖人の 경지에 도달하자는 것이 퇴계의 學問과 敎化의 목표인 것이다.

퇴계는 ‘太極圖說’을 道理의 大頭腦處요, 百世道術淵源이라 함으로써 그의 聖學十圖에 있어서 第一圖로 삼고 있다. 인간은 이 도덕적인 理와 우주 생명적 氣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인간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性은 仁義禮智라는 네가지 덕목의 본질로 구체화 된다. 인간의 윤리규범과 정치사회 생활의 원리 등도 바로 도덕의 原理에 따라서 규정될 때 비로소 理想的이라 할 수 있다.¹³⁾

그러므로 퇴계가 本性을 역설한 것은 理로서의 天·天命·太極에 내포된 우주의 의미, 즉 나 자신의 存在意義이기도 한 그 우주의 의미가 心性의 통로를 통해 드러남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天人合一 思想은 바로 理想的 人格으로서의 聖인과 理想政治로서의 聖君之治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존재론적 근거가 된다. 일상속에서 天命에 대한 무한한 敬畏를 잃지 않고 天의 變異를 통한 天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격적 만남은 퇴계에 있어서 天人合一의 妙를 성취하고자 하는 天人關係의 가장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理氣論을 통한 天人關係의 形而上學的 根據를 정밀하게 밝히면서 인격적 內面的 覺醒을 실천하는 內的 修養과 더불어 도덕정치, 사회적 완성 실현을 위한 外的 具現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점에서 天人合一 구조를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실질적으로 그의 天人關係에 대한 관심과 체계는 君道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 정치사회적 관심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理尊論的 理氣二元論

퇴계의 ‘理’란 사물과 관련있는 모든 법칙을 일반화하여 말하는 것

13) 張勝求, ‘退溪의 自然性의 世界觀 研究’, 『退溪學研究』 6輯, (서울: 檀國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2), p.16.

이며, ‘氣’란 사물의 현상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상세계는 氣가 만든 바의 세계이지만 氣의 만듦은 반드시 理에 의거해야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사람이 벽돌·기와·목재 등의 재료로써 家屋을 지으려고 하면 이러한 재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재료들을 사용하여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가옥의 형식, 즉 設計圖를 필요로 한다. 이때 벽돌·기와·목재 등의 재료는 形而下的 그릇, 즉 이 가옥을 지음의 도구이며, 가옥의 형식 즉 形而上的 이치는 바로 이 家屋을 지음의 근본이다. 家屋이 완성되면 그 가옥의 형식 즉 설계는 그 가옥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치가 모든 사물을 창조함은 이와 같다.¹⁴⁾

그런데 퇴계는 理와 氣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理氣不相雜의 관점을 고수·강조한다. 퇴계에 있어서 理는 결단코 善 그 자체이자 貴한 것이며, 氣는 惡의 근원으로서 賤한 것이다. 여기서 理는 영원히 不變·不滅하는 진리의 本體로 尊崇되며, 이 理는 物에 명령을 하되 스스로는 명령을 받지 아니하는, 가치적으로 우월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퇴계는 “개체의 氣는 理에 근거하여 나날이 생겨날 때에 왕성하여 無窮하게 된다.”¹⁵⁾고 하여 이러한 理性이 모든 생명존재의 근본원리라고 까지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연의 필연적인 운동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가 좌우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자유가 인정될 수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感性的인 氣質의 發動에 理가 좌우될 뿐이고 그 능동적 자발적인 발동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인간 정신의 합리적·도덕적 발현은 우연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理性的·精神的 특이성이나 위대성은 말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感性的의 필연법칙에 구속되지 않는 순수한 理性的의 自發性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퇴계는 氣만이 發하는 것이 아니라 理

14) 范壽康著. 洪瑀欽譯, 「朱子와 그 哲學」, (大邱: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8), p.93.

15) 「退溪集」, 卷29, 論李仲虎碣文示金而精 別紙.

도 發한다는 사실에 착안했던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主理 내지 理尊의 觀點은 禽獸와 구별되는 인간의 위치를 정립하지는 것이며, 感性的 次元으로의 인간의 格을 높이지는 것이다. 그 시대의 價值的 顛倒를 바로 잡고자 하는 퇴계의 신념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는 天理와 人欲이 혼동될 수 없고, 王道와 霸道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終局에 가서 天理와 人欲을 바꾸어 세력과 재물을 숭상하고, 義理와 天道를 倒喪하는 亂常悖倫의 결과가 초래하게 됨을 염려한 데서 나온 것이다.¹⁶⁾

이처럼 理가 도덕·윤리적 차원에서 所當然을 지칭하게 될 때, 그가 갖는 가치의 측면은 至當之則이 되며 동시에 善의 原理가 되고 있다. 그래서 理자체는 善으로 여겨지게 되며 純善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純善하고 불변한 義理의 실체인 理를 가지고 善惡未定の 氣와 대비할 때, 理貴氣賤은 더욱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된다. 이렇듯 퇴계의 理尊은 그것이 한갓 관념적 형이상학적 思辨이 아니라, 보다 現存的인 것이며 진정한 인간성이며 생활속에 드리운 天理였다.

퇴계는 그의 삶과 삶과 그리고 됨을 理의 준칙으로 하였다. 그러니 이것은 一朝에 豁然히 터득된 것이 아니라, 인간형성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때문에 마음을 닦는 근본의 자리를 쉬임 없이 가다듬는 途程에서 그의 학문과 인격은 水晶처럼 되어갔다고 했다.¹⁷⁾ 퇴계는 이러한 근본존재를 자신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가장 卑近하고 平常한 生活에서 찾았다. 그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인간성을 최고도로 계발하여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이 美德들을 원래 具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가장 진지하게 理를 이해하려고 노력함을 뜻하며 理의 추구는 人道에 어긋나지 않고 正義로운 사회가

16) 成均館大學校 儒學科 教材編纂委員會, 「儒學原論」, (서울: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93), p.110.

17) 丁淳睦, 「敬을 志向하는 義理學으로서의 退溪學」, 「아카데미 論叢」 3輯, (서울: 世界平和教授 아카데미, 1975), p.31.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사실 퇴계에 있어서 理想政治란 聖君之治이다. 이 최선의 정치형태인 聖君政治야말로 퇴계에 있어서는 理發而氣隨之에 해당하는 정치의 理想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세습에 의해 왕위에 오른 君主는 氣發而理乘之의 論理에 입각해서 聖君에 가깝도록 修養해야 한다. 이것은 퇴계가 聖學十圖를 올린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퇴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있어서도 인간의 內面的인 道德性을 중요시하였으며 인간 본연의 性에 입각하여 정치적 사회적 행위를 할 때 정치사회가 결과적으로 우주자연의 궁극적인 원리인 理와 합치하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였다.¹⁸⁾ 결국 百姓들도 王의 赤子로서 일방적 보살핌과 동정적 지배만을 받아야만 하는 沒主體的 存在가 아니라, 이제 왕과 동일한 體와 性을 本有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主體性을 본유하고 태어난 지배의 對象인 것으로 격상 정립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퇴계가 理氣論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전체성원들의 합리적인 자리매김과 그 자리를 바탕으로 한 理想的인 處身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가 하나의 和解된 전체로서 안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각자의 직분에다 자신을 한정시키고 그 한정된 自己를 실현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곧 전체를 위한 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인간의 정치사회에는 그 理의 실현이 왕을 통해서 백성을 化育시키는 聖君政治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정치사회에 구현되어야 할 존재론적, 당위론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편적 理 그것이었다. 그것의 실현 형태야말로 퇴계의 聖君像이었다.

18) 李東熙, '朱子學의 哲學的 特性과 그 展開樣相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p.66.

Ⅲ. 聖學十圖에 나타난 聖君論과 實踐論

1. 聖學十圖의 修己治人으로서 聖君

聖學十圖가 갖는 비중은 퇴계의 著述 전체 중에서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는 이 著述을 宣祖에게 올리고 나서 '내가 나라의 은혜를 갚는 길은 이것에 그칠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聖學十圖가 儒敎社會의 핵심인 임금의 德을 닦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된 것이다.¹⁹⁾ 그래서 聖君之學은 임금의 단순한 敎養이 아니라 時勢를 통찰하고 爲政의 得失을 항상 반성하며 정치철학을 확립하여 이에 따름으로써 현실정치를 적절히 행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聖君政治를 모든 理氣論的 存在論의 근거위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聖學思想體制에 대한 새로운 합리화를 聖學十圖에 의해 추구하였던 것이다. 聖學十圖의 序文인 '進聖學十圖劄'의 다음 글은 당시의 心境을 잘 말해 준다.

“臣은 學術이 거칠고 성기며, 言辯이 서투른 데다가 疾病까지 잇달아 侍講을 드물게 하였는데, 추운 겨울부터는 全廢하게 되었습니다. 臣의 죄가 만만 죽어 마땅하여 걱정스럽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臣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에 글을 올려 學問을 論한 말이 殿下의 뜻을 感動·奮發시키기에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經筵에서 여러 번 아뢴 말씀도 殿下의 슬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²⁰⁾ 老學者 퇴계는 늙고 병약한 자신의 氣力에 한계를 느끼고 어린 왕의 이해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한다음 물러나기로 결심한 듯하다.

19) 琴章泰, 「儒敎와 韓國思想」, (서울: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4), pp.168-169.

20) 「退溪全書」一, 進聖學十圖劄, “願臣學術荒疏 辭辯拙訥 加以賤疾連及侍稀罕 冬寒以來乃至全廢 臣罪當萬死 憂慄罔措 臣竊伏惟念 當初上章論學之言 既不足以感發天意 及後登對屢進之說 又不能以沃贊睿猷”, 196면下.

인간은 善惡의 갈림길에 서 있는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聖君은 인간이 善性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中正·仁義라는 도덕적 準據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教化해야 한다고 한다. 仁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治心의 學問이 곧 聖君之學이라 할 수 있다. 새싹은 뿌리를 만들지 못하고 반면에 뿌리에서 싹이 나오듯이 仁은 本體이고, 사랑은 그것의 運用인 것이다. 어짐은 사랑의 원리이며 사랑은 어짐에서 나온다고 한다. 어짐에 대해 사랑은 옛의 단맛이나 식초의 신맛과 같은 것이다. 사랑은 그 맛이다. 이는 반드시 스스로 體得해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理想的인 다스림을 위해서는 먼저 治者 자신의 도덕적인 修鍊이 요구된다. 修己란 개인윤리적으로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修德을 의미하며, 그것이 제대로 되면 사람을 다스리는 治人 즉 정치도 그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論理가 근본이 되어 있다.²¹⁾

그리고 修己의 방법은 인간의 욕심을 막고 인간의 본성속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인 理를 보존함으로써 善한 情을 보존하고 惡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계에 있어 바람직한 理想人은 聖人·聖君과 같이 理想的인 修己와 治人의 능력을 갖춘 인간이다. 그의 聖學十圖는 바른 이러한 聖인과 聖君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즉 氣發而理乘之의 論理에 입각해서 현실의 왕을 聖君에 가깝게 만들려는 노력에 다름아니다. 나아가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몇몇한 윤리를 행해 人心이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밖의 法則·文物의 문제는 副次的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퇴계는 우선 인간주체의 자기정립을 근본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내가 참되고 바르고 깨끗하고 힘있지 아니하고서는 家庭·社會·國家·世界에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물마다 이치가 있는 것이니 국가사회의 조직에도 반드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理에

21) 金春植, 「退溪의 行政思想에 관한 研究」, 『安東文化研究』 6輯, (安東: 安東文化研究會, 1992), p.52.

근본해서 다스리면 국가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며, 이 理를 어기면 국가가 어지러워지는 것인즉 이 理는 곧 治國의 要諦이다. 政治道義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道心の 守護에서만 가능한 까닭에 이것을 위한 修己는 治人の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68세의 高齡으로 政界를 은퇴하는 마당에서 主上殿下에게 간곡히 進言하기를 “臣은 어리석게도 道術을 밝히고 人心을 바로잡는 것을 새로운 政事를 펴시려 하는데 제시하나다.”²²⁾고 한 퇴계의 眞意는 主上殿下로 하여금 明道術 正人心의 정치적 이념을 이 땅에 구현하고 싶은 愛國衷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修己는 明德을 갖추어 있는 사람의 본성을 밝히어 그것이 天下에까지 확충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마음은 이 本性和 情의 四端心을 다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의 이 四性和 四端心이 人欲에 구속됨이 없이 밝음 그대로 드러날 때 家庭과 國家. 天下가 모두 편안하게 될 것이다. 모든 대립과 투쟁은 이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까닭은 사람의 마음속에 갖추어 있는 理가 다같이 때문이다. 인간과 인간사이에 이해가 가능한 것은 이 까닭이다. 事物 當然之理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속에 內在해 있는 이치가 밖에서 일어나는 사물에 따라서 그때 그때 發現되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은 역시 ‘나’라는 주체적 성실성에 있는 것이고, 자기완성에 머물지 않고 他者에로 仁을 확충하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우고 舜처럼 될 수 있다고 믿고 奮然히 생각과 배움 두가지 功業에 힘쓰라”²³⁾고 하였다.

결국 개개인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賤한 氣質을 잘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자신의 氣質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자신의 肖像을 달리 그리게 될 것이다. 그 肖像의 兩極端은 聖인과 禽獸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은 이 두 肖像사이에서 제가꿈 어느 한 쪽을 더 닳게

22) 「退溪全書」一, 戊辰六條疏, “臣愚必以明道術以正人心者 爲新政之獻焉”, 187면下.

23) 上揭書, 進聖學十圖箚, “先須立志 以爲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赤若是 奮然用方於二者之功”, 197면下.

혹은 덜 닳게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 사람이 學問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學問은 人間修行의 길인 것이다. 內的 成長이 없는 상태에서의 外的 成長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本能과 罪過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없고, 外的 成長이 없는 가운데 內的 成長만을 심화시킨 사람은 보람있는 사회활동에 참여치 못함으로써 고립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內的 成長과 外的 成長이 조화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²⁴⁾

그리하여 퇴계는 인간의 內面的인 道德的 善性を 기초로 하여 治者의 차원에서는 不斷한 修身을 통하여 그리고 被治者의 차원에서는 부단한 教化를 통하여 思考와 行動의 善한 결과를 가져오는 통치방법을 구상하였다. 이처럼 퇴계는 治者의 內面的 修身의 문제를 중요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평소에 하는 모든 일에 끊임없이 이기심을 씻어 버려서 마음의 盜賊을 제거하고 惡의 근본을 뽑아내서 天理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목장의 나무와 같다. 나무를 베어내고 그 위에 소나 양떼를 放牧하기 때문에 새로 움터 나오는 풀과 나무의 새싹까지도 먹어치우니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없게 된다.

우리의 內心을 살펴보면 언제든지 噴出할 수 있는 善의 샘이 용솟음치고 있다. 道德이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꺾을 수 없게 묶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이 善泉이 噴出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善의 샘물을 치솟게 하는 자발적인 의욕이다. 우리들의 內心에 이러한 고귀한 욕구가 마치 흙속에 묻힌 보석처럼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自覺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하여 聖이란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道德의 완성이라는 점이며, 남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케 하는 인격을 이룬 사람이 결과적으로 가지게 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의 문제의식은 크게 修己와 治人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24) 全樂熙, 「東洋政治思想研究」, (서울: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2), p.93.

퇴계는 聖學十圖에서 修己治人의 목표가 결국 王을 중심으로 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王을 중심으로 한 통치계층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먼저 修己가 필요한 근거로서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함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天人關係에서의 인간의 주도적인 위치를 강조함으로써 修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였다.²⁵⁾ 政治라는 것이 윤리를 실천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政’의 의미는 ‘正’ 즉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道德의 실천은 자기 즉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타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데까지 확충되어야 한다. 즉 修己治인이 바로 政治요, 教化인 것이다.

그런즉 人君의 사람다움은 정치의 대전제가 된다. 그것은 人君이 먼저 도덕적 인간이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人君은 聖人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퇴계는 治者의 人格과 道德性에 정치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居敬과 窮理의 工夫와 實踐

퇴계는 임금에게 聖學十圖를 올리면서 “聖學을 勸導하고 君德을 保養하여 堯舜처럼 융성한 데 이르도록 할 직책을 비록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한들 되겠습니까.”²⁶⁾라고 聖君之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聖學十圖를 그려 올리는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만 옛 聖人君子들이 聖學을 밝히고 心法을 얻어서 圖를 만들고 說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道에 들어가는 門과 德을 쌓는 기초를 가르친 것이 오늘날 해와 별과 같이 밝아 있습니다. 이에 감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殿下에게 진술하여 옛 帝王들의 工誦과 器銘의 끼친 뜻을 대신

25) 張淑必, 「栗谷 李珥의 聖學研究」,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2), p.225.

26) 「退溪全書」一, 進聖學十圖筭, “則是勸道聖學 輔養君德 以期致於堯舜之隆 雖欲辭之以不敢 何可得也”, 196면下.

하고자 합니다.”²⁷⁾ 이와같이 퇴계는 聖學十圖를 그려 올리는 동기가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道에 들어갈 수 있도록 案内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퇴계가 바라보는 인간이란 항상 善惡이 대립·갈등하는 인간이다. 그는 인간이 아무리 감성적 부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마음의 본성을 실현하는 데서 구체적인 理想的 人間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성의 완전한 실현과 이는 누구나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적극적인 긍정론과 그 방법을 제시했다.

“대개 聖門의 學은 마음속으로 구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서 얻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마음으로 思索해야 그 미묘한 것에 통달하고 그 일을 습득하지 못하면 위태로워져서 불안한 까닭에 반드시 일을 배워서 그 실상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思索하고 배우는 것이 서로 밝고 서로 유익합니다.”²⁸⁾라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理發과 氣發, 四端과 七情 그리고 道心과 人心은 각각 순수한 정신적 가치와 신체적 물질적 욕구의 두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理와 氣에 있어서 理의 우위가 확보되고 氣는 理의 주재하에 있어야 할 것이며, 결코 氣에 의해서 이끌려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여기서 心の 主宰로서의 敬은 그 要法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聖君之學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간존재로서의 心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 心에는 思考作用이 있기 때문에 聖인이 되기 위한 목표설정과 자기존재에 대한 인식,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聖學十圖의 중심과제가 心에 대한 해명이요, 心을 다스려 修養하는 心法에 있다.

더욱이 인간의 內心에는 남이 볼 수 없고 알지 못할지라도 自己欺瞞

27) 前揭書, 進聖學十圖筭, “惟有昔之賢人君子 明聖學而得心法有圖有說 以示人入道之門積德之基者 見行於世昭如日星 茲敢欲乞以是進陣於左右 以代古昔帝王工誦器銘之遺意”, 196面下.

28) 上揭書, 進聖學十圖筭, “蓋聖門之學 不求諸心 則昏而無得故 必思以通其微不習其事 則危而不安故 必學以踐其實 思與學交相發而互相益也”, 197面上.

의 마음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마음이 바탕하고 있다.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려는 의도조차 경계하고 마음을 성실하게 갖기를 강조한다. 따라서 퇴계에 있어 敬工夫는 聖人の 실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公益을 쌓고 共同善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공부로서 강조된다. 인간의 도덕적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서 道德的 修養의 문제는 출발하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善惡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一身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음의 主宰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삶 전체를 통해서 일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퇴계는 聖學十圖가 敬을 주로 삼고 있다고 하고, 心性과 持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理氣를 兼하고 性情을 統率하는 것은 마음인데 性이 發現하여 情이 되는 즈음이 곧 한 마음의 機微요 많은 변화의 요긴한 것이다. 善惡은 여기에서 과생하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진실로 능히 敬을 가지는데 專一하여 利와 欲에 어둡지 않고 더욱 이에 삼가서 아직 발현되지 아니 할 적에 存養하고 工夫가 깊고 이미 감정으로 발현된 뒤에 반성하고 관찰하는 습성이 익숙하여 참되게 쌓고 오래 힘써 그치지 아니하면 ‘書經’의 이른바 정밀하고 오로지 하며 치우침이 없이 뿔뿔한 도리를 잡는 聖學과 存體應用的 心法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기다리지 않아도 여기에서 얻을 것이다.”²⁹⁾ 따라서 무엇보다도 理를 성찰하고 見幾而作하여 사물의 理 또는 人事의 理에 어긋남이 없이 합당하게 處事하지 않으면 안된다. “敬을 간직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兼하고 動과 靜을 일관하며 마음과 행동을 合一하고 드러난 곳과 은미한 곳을 한결같이 하는 道이다.”³⁰⁾라고 하였다. 그는 단순한 관념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29) 「退溪全書」一, 聖學十圖 心統性情圖說, “要之兼理氣統性情者也心 而性發爲情之際乃一心之機微萬化之樞要 善惡之所由方也 學者誠能一於持敬 不昧理欲而尤致謹於此 未發而存養之功深已發而省察之習熟 眞積力久而不已焉 則所謂精一集中之聖學 存體應用之心法 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 205面下-206面上.

30) 上揭書, 進聖學十圖筭, “持敬者 又所以兼思學貫動靜 合內外一顯微之道也”, 197

아니라, 그 體得과 修省의 실질적 입장에서 體現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래서 敬은 사람됨의 길에 없어서는 안될 藥이고, 자아실현을 主宰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다.

퇴계는 第十圖 夙興夜寐箴圖에서 “원래 天道의 常理는 일상생활의 모든 때와 장소에 두루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理가 없는 곳이 없고 따라서 敬을 실천하지 않아도 좋은 장소는 없는 것이다. 또 理가 없을 때가 없으니 敬을 실천하지 않아도 좋을 시기는 없는 것이다. 敬은 인간생활의 모든 장소와 시기에 動靜을 일관하여 存養하고 省察하며 그 工夫를 힘써야 하는 바이다. 이같이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잠시도 끊어짐이 없게 될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털끝만큼의 차이도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時空의으로 敬 工夫가 병행되면 聖人の 경지에 들게 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다.”³¹⁾ 이처럼 퇴계가 보는 敬의 실천은 인간이 도덕적 주체로서 自我를 확립하려는 생활태도에 있다. 이제 이러한 敬의 실천은 聖君으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퇴계는 강조하였다.

聖人이 된다는 것은 理 그 자체인 人間이 되는 것이다. 內在한 理와 外在하는 理의 合一을 구하는 것이다. 퇴계는 ‘聞道란 知行的 功을 겸하고 天人의 理를 관통한다’고 하였다. 퇴계는 인간의 心性속에 하늘의 이치가 주어져 있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이치를 습득할 수 있는 바탕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바탕그림에 彩色를 하여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있는 그림으로 완성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學習과 自己陶冶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바로 배우고 익히는 데로 나아감의 求知方法인 것이다. 요컨대 窮理를 통하여 사물의 이치에 이르려는 인간의 노력의 절정에서 인간은 사물의 蘊奧를 인식하게 되지만 그것은

面下.

31) 上揭書, 聖學十圖 夙興夜寐箴圖, “天道之流行於日用之間 無所適而不在故 無一席無理之地 何地而可輟工夫 無頃刻之或停故 一無息無理之時 何時而不用工夫 此一靜一動隨處隨時 存養省察交致其功之法也 果能如是則不遺也頭無毫釐之差 不失時分而無須臾之間 二者竝進 作聖之要其在斯乎”, 210面下-211面上.

동시에 사물의 蘊奧 자체가 인간의 노력의 극치를 매개로 해서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사물에는 理致가 있으며 사람은 그 理致를 알 수 있으니 마치 마땅히 慈愛하고 孝道할 줄 아는 것과 같다. 다만 앎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울 뿐인 것이다. 物에 이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절실한 곳으로부터 이해를 넓혀가야 한다.

그래서 퇴계는 聖學十圖, 小學圖에서 이르기를 “이치를 깊이 연구하고 몸을 잘 수련하는 것은 學問의 大要가 되는 것이다. 밝은 명령은 온 세상에 환하게 밝혀 있어서 안과 밖이 없는 것이니 덕망을 높이고 공경함이 넓어야만 인간이 本性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³²⁾ 그러므로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도 나의 본성을 밝힐 수 있으나 가장 절실한 것은 직접 자신을 밝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에 理의 인식이 자명하게 되어 內外와 精粗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발례의 屈伸과 龍蛇가 冬眠에서 깨어남과 같이 진리인식의 主客을 相互·體用의 관계로 보아 內와 外가 相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理를 認識·體得했다고 해서 인간의 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萬事·萬物과 접촉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理나 性을 적극적으로 발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는 聖學十圖 序文에서 “마음은 方寸에 갖추어져 지극히 텅비고 지극히 신령스러우며, 理는 그림과 글 가운데 나타나 지극히 드러나고 알차다. 지극히 텅비고 지극히 신령한 마음으로 지극히 드러나고 지극히 알찬 理를 찾는다면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³³⁾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心과 理가 融會되고 행위와 일이 익숙해져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理想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퇴계는 進聖學十圖筭에서 “참되게 노력하기를 오래 쌓아가면 저절로 心과 理가 서로 녹아들게 되어 자기도 모른 사이에 融

32) 前揭書, 小學圖, “窮理修身 斯學之大 明命赫然 罔有內外 德崇業廣 乃復其初”, 201면下.

33) 上揭書, 進聖學十圖筭, “夫心具於方寸 而至虛至靈 理著於圖書 而至顯至實 以至虛至靈之心 求至顯至實之理 宜無有不得者”, 197면上.

會貫通하게 되고, 나의 행위와 일이 서로 익숙해져서 점차 쉽고 평안하게 된다.”³⁴⁾고 하였다. 마음속의 天理가 밝아져 마음과 天理가 하나로 融化되어 마음이 바르게 되고 안정되면 마음이 사물을 다 비출 수 있고 사물이 나의 마음의 거울에서 달아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窮理는 그저 사물의 인식이나 지식의 축적을 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修己治人の 德을 닦음으로써 至善에 머물기 위한 方法的인 當爲性을 요구하고 있다.³⁵⁾

이에 이르는 窮理의 과정은 私欲이나 邪心에서 나타나는 편견이나 아집을 벗어나서 居敬 상태에서 바른 객관적 인식을 얻는 방법이다. 즉 居敬 상태가 선행되지 않으면 窮理를 통하여 참 앎에 이를 수 없다. 퇴계의 학문의 목적이 인간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性善을 구현하는 데 있다면, 敬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매개수단이다. 그래서 그는 聖學十圖의 大學經에서 敬은 마음의 主宰이며 萬事의 근본이라 하였고, 大學 小學을 일관하는 원리가 됨을 강조하였다. 결국 퇴계에 있어 敬은 인간의 도덕적 주체로서 自我를 확고하게 지키려는 태도이며, 참된 진리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힘인 것이다.

IV. 聖君의 役割과 理想政治

1. 天理의 順應과 政治社會의 秩序

퇴계는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하여 君王은 修省하여 인간 본래적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天理와 合一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정치사회적 행위가 純善하여 惡이 없는 경우

34) 上揭書, 進聖學十圖筭, “至於積眞之多 用力之九 自然心與理相涵 而不覺其融會貫通 習與事相熟 而漸見其坦泰安履”, 197면下.

35) 崔省默, ‘退溪의 道德論에 관한 考察’, 「退溪學研究」三輯, (慶尙北道, 1975), p.133.

와 不善으로 흐르는 경우의 두 형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內在의 本性인 本然之性을 중요시 한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정치행위는 純善하여 惡이 없는 상태로서 모두가 善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퇴계는 人心이야말로 是非判斷의 기준이자, 國家治亂의 근원이라고 했다. 즉 人主 곧 통치자의 治心.正心이 治國의 일차적 과제임을 聖學十圖를 통해 그의 정치철학을 폈던 것이다.³⁶⁾ 이는 지배자의 현명과 피지배자의 論理的 善을 보장하려는 통치이론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政治란 반드시 완전할 수는 없다. 聖君이 다스리는 정치는 德으로 다스리는 정치이며,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임금 은 正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데, 그 가운데에는 허다한 工夫節目이 있으므로 만일 다만 한두가지 사소한 일만을 고쳐 재앙을 없애려 한다면, 이는 일의 진실을 얻지 못한다.³⁷⁾ 修身으로써 治者의 德을 기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퇴계의 聖君之治는 우선 통치의 핵심인 임금을 聖君으로 만들어 그렇게 정치를 하도록 보필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백성이 善良한 인간이 되도록 教化함에 있다. 임금의 올바른 지위와 권위는 온 백성이 추구하는 인간적 도덕의 입장에서 正當性을 얻게 된다. 퇴계가 정치를 도덕의 파생으로 바라본 것은 바로 인간 정치이론의 기초였다. 道德을 정치적 기초로 간주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일정한 이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퇴계는 특히 역사발전의 治亂과 관련하여 君主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治亂의 중요한 중요한 변수를 정치·사회적 현실문제와 결부하여 찾으려 하기보다는 君主의 마음에서 찾으려 하였다. 마음은 마치 濾過器와 같은 것이어서 모든 思惟는 다 마음으로

36) 文誥永, '16세기 帝王學의 定立과 心學', 中齋 張忠植 博士 華甲紀念論叢, 論叢刊行委員會, 1992, p.261.

37) 高橋進著 安炳周.李基東譯, 「李退溪와 敬의 哲學」, (서울: 新丘文化社, 1986), pp.143-144.

걸러서 나온다. 모래는 淘汰시키고 金만을 남기며 잡초는 제거하고 꽃만 남게 하여 그 精要만 얻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함이 있으면 舜이 될 수 있는 존재이다. 德行이 彝倫에 벗어나지 않으면 天人合一의 妙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朝廷이 바로 서고 百官이 바르게 되며 사회의 질서가 안정이 된다고 보았다. 즉 군주의 마음을 萬民善治의 근원으로 본다. 한 나라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임금의 머리와 같아서 다스려질지 혼란해질지는 임금에 달려 있으며, 임금의 마음 한번 움직이는 데 말미암는 것이라 보고 있다. 그 만큼 군주는 통치의 핵심주체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백성이 근본이지만 國運을 결정하는 일은 임금의 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라 보았다. 마치 국가라는 복잡하고 큰 기계를 작동하는 스위치가 임금의 마음에 의해 조종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³⁸⁾

결국 君主는 사회질서의 중심이고 君主의 마음은 인간사회 일체의 사물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道心이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理로써 일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게 되면 下情이 上達되고 上下가 일체가 되며 국가가 반드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원래 인간은 天理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독자적인 발판이 분명히 세워지고 지향되어 있어서 이 인간적 자각의 확립에 퇴계 人間觀의 획기적인 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理想的인 政治는 바로 이와같은 하늘의 절대적 질서와 합치되는 정치이다. 퇴계는 “道術은 天命에서 나와서 常倫을 행하는 것이니 고금천하에 다같이 공통된 올바른 길이다.”³⁹⁾고 하였다.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과 같이, 그것은 스스로 德을 닦고 자기에게 갖추어진 天命을 잘 실현하는 것이므로 자기존재를 뚜렷

38) 琴章泰, 「儒教思想의 문제들」, (서울: 驪江出版社, 1990), p.151.

39) 「退溪全書」一, 戊辰六條疏, “何謂道術 出於天命 而行於彝倫 天下古今所其由之路也”, 186面下.

이 나타내는 것이 되니 오직 평소에 사람됨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임금의 學問과 人格은 萬民의 숭앙을 받을 만큼 성숙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이 되면 마치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처럼 착각하여 進德修業을 게을리 하고 無恥와 無所不爲의 특권과 권위에 놀아나 타락하기 쉽다. 국가의 大事를 장악하고 生死與奪을 좌우하는 왕의 인격이 파탄에 빠진다면 국가와 백성에게 그보다 더 큰 위험과 손상은 없다. 그러나 임금이 聖人이라면 그보다 손쉽고도 효과적인 정치도 없다.

비록 정치가 잠시 正道를 벗어나 있고 사회가 방향을 잃어 혼란하더라도 참된 知性人들, 곧 人道를 窮盡하고 春秋大義를 실현하고자 하는 治者들의 엄한 비판과 방향제시가 활발히 전개되는 한, 그 사회의 미래는 밝게 전망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風土의 造成이 중요한 것이며, 그 관건은 최고통치자이다. 그가 私邪로우면 小人들이 이에 아부하여 득세할 것이니, 그들의 私利와 功名心속에 국가의 장래는 묻혀버릴 것이요, 임금이 正道를 걸으면 小人이 발붙일 곳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正義政治가 행해져 國脈을 빛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계는 정치라는 것은 무슨 治人의 기술 따위로 본 것이 아니라, 君主의 至公無私한 통치아래 백성이 각기 제 바른 자리를 차지하여 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調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君主는 一身이 지극히 존경의 대상에 있으므로 四方에서 바라보고 있는 萬民이 있으니 天下의 至中인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그렇게 조화로운 사회질서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군주의 한 마음이 전혀 편벽되거나 가려짐이 없어서 마치 中天의 태양처럼 大公至正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人君은 天命을 받아 天位에 居하니 마땅히 乾道의 剛健함을 體現하여 한 순간의 게으름도 없어야 이에 配天立極하여 君道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⁰⁾

40) 金泰永,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그러므로 정치적인 행복한 생활은 바로 도덕정신의 結晶이며, 국가기구는 도덕정신의 구체적인 代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퇴계가 정치의 표준은 仁이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만약 임금이 어질다면, 어짊과 사랑의 다스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왕위에 올랐으면 私를 떠나 公的 存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으로 말하면 修身에 해당하나 이 修身이 治國의 근본이듯이 君王의 이같은 仁德이 곧 治國과 百姓을 통치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법적 권력을 앞세워 다스리는 정치보다 德과 禮에 의한 感化와 和解의 政治를 높이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백성에 대하여 군주는 위압적 입장을 넘어서 赤子를 보호하듯 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피며 啓導해 감으로써 가정의 부모와 같이 숭앙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君心の 事情과 善不善의 程度가 治亂의 關鍵이 된다.

퇴계는 聖學十圖에서 “후세에 와서 人主가 天命을 받고 왕위에 올라 그 책임이 지극히 중대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전혀 옛 聖君같이 엄숙한 데가 없고 스스로 聖人인 것처럼 여기며 王公이나 수많은 백성위에 군림하면서 오만과 자만을 일삼다가 마침내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게 합니다.”⁴¹⁾고 하였다. 이처럼 治世와 亂世의 갈림길이 君主의 자질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賢士의 정치참여에서는 그의 學德이 심화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君王은 天命을 대행하는 자로서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治本을 세우는 바탕이 된다고 하여 修養이 강조되었고, 이런 聖君에 의하여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制度나 形式의 末端問題에 앞서 出治之源으로서의 君心을 중시한 정치인의 德性, 즉 정치윤리를 중시하게 된다. 德治라고 하는 聖學政治의 목적과 가치관은 人主가 天理에 근본하는 道를 얻어 治國의 方策으로 할 때, 紀綱과 法度는

1992), pp.143-145.

41) 「退溪全書」一, 進聖學十圖節, “後世人主受天命而履天位 其責任之至重大爲如何 而所以自治之具 一無如此之嚴也 則其然自聖傲然自肆於王公之上億兆之戴 終歸於壤亂殄滅亦何足怪哉”, 196面上.

그 속에서 스스로 정립된다고 하는 格君心에 두고 있었다. 萬事가 군주의 一心에 달려 있는 만큼 군주는 立志하여 政事에 헌신하여야 하는 데 學問에 정통하는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聖學에 힘쓰는 것이 군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하는 所以라는 것이 聖君之學의 綱領이었다. 따라서 人欲과 天理를 정밀하게 분별하여 天理를 모든 행사에서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2. 憂民論

政治란 인간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民을 教化시켜 倫理·道德을 인간사회에 실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倫理·道德은 정치의 목표인 동시에 수단으로서 倫理·道德과 밀접한 정치를 仁政이라 한다. 仁政은 위로는 天理에 부합되고 아래로는 民心에 순응하는 정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倫理·道德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道德修養이나 국가의 教化가 절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⁴²⁾ 백성들은 生計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는 일정한 생산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民의 경제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倫理·道德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게 된다. 孟子는 “백성들과 함께 살고 백성들과 함께 즐겨야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⁴³⁾고 하여, 民生을 안정시키는 것이 憂民政治의 시초이며, 爲政者의 책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王者의 정치는 오직 백성에게 부모노릇 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 民力을 늦추어 주고 民産을 두텁게 해주어서 백성들이 하늘로 삼는 食이 豊裕하여 그 本然의 착한 마음을 보존하게 할 뿐인 것이다.

이와같이 정치의 일차적인 과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데 부

42) 韓永愚 著, 「鄭道傳 思想의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出版部, 1989), p.187.

43) 「孟子」, 梁惠王 章句 上, “與民偕樂 故能樂也”

죽함이 없도록 하여 本然의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데 있는 것이다. 퇴계는 백성들이 만약 ‘힘없는 老弱者들의 굶어 죽은 시체가 골짜기에 버려지는’ 지경에 처한다면, 반드시 ‘슬프다, 나라의 근본이여 어찌 동요치 않으리요’하는 국면이 발생하고 말 것이라 하였다. 非常之變은 一時에 모여들지만 그같은 殃禍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니 잘 대응해 나갈 것 같으면 禍도 福으로 轉化할 수 있지만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모든 殃禍가 닥쳐오게 된다. 당시 權奸들은 백성들을 비정상적으로 橫奪하여 早期에 몰락시킴으로써 국가사회의 구조적 기반자체를 파행적 파탄의 길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퇴계는 그같은 權奸 당국의 한복판에 서서 나라의 근본으로서의 民生의 憂民策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당시의 人心은 異端의 害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聖人을 모독하고 禮儀를 멸시하는 풍습이 더러 일어나며 公利를 계획하고 이익을 피하는 폐단은 오히려 고질이 되었다. 鄉原의 德을 어지럽히는 습관은 보잘것 없는 무리들이 세속에 아부하는 데서 시작되고 俗學의 方向昏迷의 弊患은 과거보는 사람들의 名利追求에서 더욱 심하여졌다. 이러한 경우는 바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良醫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무로 만든 寢牀의 다리가 벌레에 의해 腐蝕되어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寢牀의 위 표면까지 腐蝕되어 갈 것이며 밧줄을 서로 끌어 당기는 데 있어서 끌어 당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그 밧줄은 끊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人間世事가 難治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理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데서 연유한다. 바꾸어서 말하면 一을 깨닫지 못하고서 二와 三의 세계를 탐욕하게 되기 때문에 權謀와 術數가 횡행하고 부도덕이 발생하는 것이다. 太極의 분화가 무한하다 함은 一의 분화가 무한함을 뜻한다. 그런가 하면 모든 현상이 하나의 太極으로 집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理를 깨닫게 될 때 最高善과 至止의 조화를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 관료들의 행태는 腐敗가 극심하여 관료들은 백성들을 收奪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였다. 퇴계는 주로 治者層에서는 곤경에 처하여 있는 民生은 아랑곳 없이 사치풍조만 度を 더하여 재정이 균형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나라의 앞날을 위태롭게 이끌고 人和를 저해하여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당시 執權層의 頹廢風潮라고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지적하였다. 한편 그가 天理와 人欲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바로 士林派 知識人들이 아직까지 집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王室을 중심으로 하는 勳舊派 貴族 階層의 사치와 낭비생활 그리고 부패 부조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취해진 하나의 이론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民爲邦本이니 憂民安邦에 힘쓸 것을 역설하면서 옛날의 어진 임금의 백성들 보기를 상처난 것을 보듯 하며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하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한이 없다고 했다. 그가 바친 聖學十圖의 第九圖에서 백성을 相對하고 다스리는 일에 대해 중점을 두어 소개하였는데 “외출하여 사람들과 상대할 때 마치 큰 손님 만나듯 공경히 대하고 일을 맡으면 마치 큰 祭祀 지낼 때처럼 신중히 하라. 조심조심하고 감히 조금이라도 업신여겨선 안된다.”⁴⁴⁾고 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상대하고 다스리는 일은 마땅히 始終一貫 조심하고 근신하는 태도로 조심조심하기를 깊은 물가에 다다른 듯 얇은 얼음위를 걸어가는 듯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疾病과 飢寒을 당하면 슬피하고 가엾게 여김을 직접 제몸에 당한 것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안아주고 만져 주어서 정성껏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 方策이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하여 백성을 자식 사랑하듯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어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왕의 임무임을 강조하였다. ‘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안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田里를 제정하여 뽕나무를 심고 家畜을 기르는 것을 가르쳐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아

44) 「退溪全書」一, 敬齋箴圖, “出門如賓 承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或易”, 209面上.

래로는 妻子를 기를 수 있어 풍년에는 일이 배부르고 흉년에는 사망을 면하게 하니 이것이 憂民의 근본이다.

퇴계가李文樑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단비가 세차게 내려 밭농사에는 적당할 만해서 백성들도 생기를 되찾았지만 그러나 논농사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니 어찌해야 좋을지요.”⁴⁵⁾ 퇴계의 마음은 백성들의 苦難과 긴밀히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의 고통을 한시고 잊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憂民思想의 중요한 특징인 것이다. 사람은 생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단 하루라도 앞 일을 보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은 데, 즉 一日이나 二日間에도 事機는 萬이나 된다 하였다. 國家의 治亂·興亡의 단서는 모두 극히 작은 데서 시작하여 끝에 가서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작은 불길도 끄지 않으면 大火災까지 번질 것이며, 草木의 싹을 꺾으면 大樑의 나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개미를 소홀히 여긴다면 千丈의 堤防 또한 튼튼치 못할 것이니 매사에 미리 機微를 살피지 않고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현상은 법이나 제도에 앞서 위정자 바로 그 자신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治者 계급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정치나 행정을 해야 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民生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恒産이 없게 되면 流離乞食하여 마침내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따라서 民生의 근본은 衣食住를 지탱하여 가는 恒産을 확보하는 것이 安民治道の 첫째이다.⁴⁶⁾

또한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君子와 小人을 구별할 수 있는 知人の 능력이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아는 데는 그 총명을 다 하여야 하고, 사람을 起用하는 데는 그 재능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사람을 신임하는 데는 그 誠을 극진히 하는 用賢의 바른 태도가 요구된다. 舜의 聖君이 되는 과정이 곧 取善의 과정이었던 것이니, 자기

45) 「退溪全書」三, 卷三 答李大成, “甘澤沛然 稍可于田 民始有生意 但水田尙 奈何”, 64面上.

46) 成校珍, 「成牛溪의 性理思想」, (서울: 以文出版社, 1993), p.164.

의 결함과 부족함을 他人을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이야말로 人君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君主가 근본을 단정히 하고 근원을 맑게 한 뒤에야 賢者가 기꺼이 등용되기 쉽다. 人君의 德이 날로 향상되어 높아지지 않으면 朝廷의 신하는 물론 萬百姓에게까지도 도덕적 권위가 설 수 없고 民心의 歸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개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현명하고 재능있는 자를 등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커다란 집을 지으면서도 기술자로 하여금 大木手를 구하게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또 珠玉을 갖고 닦는데 玉人을 등용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爲民意識이야말로 퇴계로 하여금 백성의 安危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게 하고 부단히 上訴文을 올리게 하는 동기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道德性은 모든 국가 정책 및 모든 국가사업을 위한 기본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퇴계의 聖學十圖는 그의 깊은 憂患意識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帝王은 진실로 敬에 열중하여 自得함이 있으면 장차 私慾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敬의 실천은 군주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퇴계는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君王自身은 異端에 의혹되지 않고 聖學의 道術에 투철할 것과 부단한 自己省察을 이루어 가야 한다.

3. 聖君의 修德과 政治的 教化

퇴계의 聖學十圖는 바로 聖君之學으로서 理想的인 君主像을 그린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퇴계가 지향하는 聖君之治 즉 仁政이다. 仁政은 신분사회라는 제약속에서의 善政으로써 民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는 政治道이며, 퇴계의 仁政도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 仁政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圓을 그리는 데 콤팩스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고, 五音を 내는 데는 六律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⁴⁷⁾

47) 陣立夫著. 鄭仁在譯, 「中國哲學의 人間學的 理解」, (서울: 民知社, 1986),

이렇듯 퇴계는 仁에 근원한 愛의 원리로써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敎化하며 天命之理를 실천하는 군왕에 의한 正道에 입각한 仁政의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모두 善하다는 전제하에 정치를 함에는 그 善한 본성 즉 仁心을 발휘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군주가 백성을 상대로 하여 그 백성이 素性を 실현할 수 있도록 仁政을 펴야 하는 것이다.

퇴계는 聖學十圖, 大學圖에서 이르기를 “자신의 몸이 닦아지면 먼저 큰 것을 세워서 작은 것을 잃지 않게 되어 자기의 집안을 정돈할 수 있고, 나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서 天下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닦고 나아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지극히 공손하여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하루라도 敬에서 떠나서는 그러한 것들을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⁴⁸⁾고 했다.

이에 바탕하여 퇴계는 治世를 걱정하고 明主가 위험을 느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정치가 高遠한 데 있지 않고 군주자신의 처신을 바르게 하면 全國家的으로 과급되어 정치목적이 달성된다. 爲政者의 正不·正은 그대로 원인이 되어 全國家的으로 결과가 확산되기 때문에 오직 善政에 힘쓰면 백성들은 모두 感化, 善民社會가 되는 이치를 孔子는 草原에 바람이 불면 온갖 풀잎이 굽히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퇴계는 사람들이 흔히 치우치기 쉬운 私邪로움의 편향을 심히 경계하였다. 특히 公義를 지향해야 될 위정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私邪로움이 극복되지 못해서 야기되는 정치사회적 타락상은 비록 퇴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임금의 一心이 바르면 君.民이 일체가 되어 오케스트라가 大合秦曲을 연주하는 것처럼 大

p.350.

48) 「退溪全書」一, 聖學十圖 大學圖,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以及乎天下則所謂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p.203面上

調和를 이루게 된다. 王政의 실현은 便私性을 떠나 가까운 民生 日常의 보편적 삶자체에서 부터 지성껏 보살피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權奸政治의 恣意性을 극복함으로써 民生의 안정을 도모하는 쪽을 지향한다는 이른바 새로운 爲民政治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퇴계는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도덕규범에 맞게 행위하고자 하였으며, 경제생활 역시 仁義라는 道德價値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公私가 분명한 생활태도, 물건을 주고 받을 때의 예의범절, 규모있고 알뜰한 집안 살림살이, 農形과 時候에 대한 예리한 판단 및 노비의 관리 그리고 外地田畝에 대한 收租 등에 이르기까지 그는 유능하고 치밀한 재산관리자의 면모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儉約을 숭상하고 奢侈를 말기를 역설하였다. “儉約을 숭상하고 奢侈를 금지하여 국가와 개인의 재산을 넉넉히 해야함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⁴⁹⁾ 이러한 경제행위가 도덕적 표준이 된 것은 몸소 仁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몸소 義로써 실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나아가 퇴계는 善은 敎化의 바탕이며 사회의 紀綱으로 善에 의한 敎化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온갖 時弊가 발생하여 逆理現象이 露呈되어 虛僞가 성행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善의 社會化運動의 하나로 鄉約을 짓고 그의 실천을 전개하였다. 중앙 정부에서 強權과 命令으로 다스릴 수 없는 國民改造를 퇴계는 예안 땅에서 성취해 놓았던 것이다.⁵⁰⁾ 鄉約은 修己治人の 길, 곧 化民成俗의 理想社會의 실현이라는 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민간주도적인 향약의 발현은 오히려 이로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퇴계는 시대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일종의 狀況倫理로서의 사회규범을 構圖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표현 속에서 朝鮮朝 性理學은 그 보편적 진리안에서 성숙의 일면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49) 前掲書, 戊辰六條疏, “崇儉約 禁奢侈 以裕公私之財力者 不可緩”, 192面上.

50) 權五鳳, 「퇴계선생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서울: 우신출판사, 1993), p.321.

그리하여 퇴계가 사회를 전망하면서 가장 걱정하였던 것은 하늘로부터 버림받는 弊民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데 있었다.⁵¹⁾ 그러나 만일 이처럼 일의 本源이 여기서 나옴을 알지 못하고 義를 犯하고 禮를 侵하여 우리 鄉俗을 파괴하는 자가 있으면 이는 하늘의 弊民이다. 이처럼 퇴계는 爲己之學을 닦는데 그치지 않고 널리 性理學的 社會理想의 실현을 위해 힘썼다. 그는 사회성원간의 和睦한 인간관계와 사회정의의 도덕적 실현을 鄉約에서 開陣하였다.

국가의 일은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서고, 국가의 形勢는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進歩와 衰退, 平和와 混亂이 초래되는 바는 실상 人間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君은 마땅히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機微를 살펴서 평화가 이룩되게끔 힘쓰고 혼란이 오지 않게끔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사람이 仁義禮智라는 네 가지 端緒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팔다리를 갖고 있음과 같은 것이다. 이 네가지 端緒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 임금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임금을 해롭게 함이다. 무릇 이러한 네가지 端緒가 자신에게 있으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펼쳐 나가면 흡사 불씨가 처음타는 것이나 샘물이 처음으로 솟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그것을 擴充시켜 나가면 국가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本然의 性은 聖人에게도 凡人에게도 똑같이 구비되어 있어 단지 混濁한 氣稟이 이것을 가리우고 있으니까 惡이 생한다. 가리우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원래 존재하고 있는 善性이 顯現된다.⁵²⁾ 存心과 窮理, 主觀的인 方法과 客觀的인 方法에 의해서 내부의 人欲을 滅하여 本然의 性으로 돌아가고 外部世界의 理法과 合一한다면 그는 聖人이 된다. 이것이 道德的 精進의 궁극의 목표이며, 개인의 이러한 도덕적 정진이 모든 정치적 사회적 가치의 전제조건이 된다.

51) 金裕赫, '退溪의 鄉約과 社會觀', 「退溪學研究」1輯, (서울: 檀國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87), p.223.

52) 朴忠錫, 「韓國政治思想史」, (서울: 三英社, 1982), p.36.

따라서 퇴계는 목숨이 다하는 최후까지 君主의 一心을 涵養하고 돌이키려는 신념에서 우려난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특히 老齡의 68세 때 그의 聖君之學이라 할 수 있는 聖學十圖가 그것이다. 이는 帝王의 修身正心과 그 현실정치에의 적용이라는 공통의 명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遺表的 著述인 것이다. 권력이 도덕적 기반에 설 때 시대적 혼란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군주를 비롯한 治者들이 권력을 도덕적으로 행사할 때 사회는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君主를 비롯한 治者들의 道德的 修養이 요구되고, 결국 國政治는 倫理化 된다.

따라서 國家의 治亂은 모두 다 仁政의 有無로 판단된다. 仁政의 시행은 반드시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자신이 仁心을 세울 수 있는 데 의존하게 된다. 이른바 人主가 남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에 남을 가엽게 여기는 정치를 하게 된다.⁵³⁾ 理想主義的인 政治社會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 主理的 立場의 퇴계는 인간의 個人的 修己를 위주로 한 教化를 통하여 仁義禮智의 本然之性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에게는 孝親敬兄의 倫理를 가르쳤고, 혼탁함을 물리치고 맑음을 세워 善에 옮겨가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퇴계는 당시의 정치가 극도로 문란했기 때문에 化民成俗으로 國政을 醇正시켜 보고자 했던 것이다. 국왕의 힘에 의한 上命下達의 專制君主時代에 퇴계는 下意上達의 民本型 行政을 지향한 것이다. 다스리는 처지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서 법을 지키는 國民像을 보인 것이다. 紀綱이란 국가의 元氣로서 기강이 서지 않으면 萬事が 頽廢하고 원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百骸가 해이해 진다.⁵⁴⁾ 훌륭한 의사는 사람이 瘦瘠하거나 肥大한 것을 보지 않고 그 脈을 짚어보고 病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며, 국가를 잘 경영하는 이는 국가의 安危를 보지 않고 그 기강의 治亂을 살핀다.⁵⁵⁾ 治者의 指導力·道德性·意志·率先垂

53) 勞思光著, 鄭仁在譯, 「中國哲學史」(古代篇), (서울: 探求堂, 1991), p.150.

54) 「栗谷全書」, 卷 25 聖學輯要 7, “臣按 紀綱者 國家之元氣也 紀綱不立則萬事頽墮 元氣未固則百解弛”

範이야말로 정치의 成敗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治者의 道德性은 정치적 권위를 낳고, 그것을 통해 자연스런 民心의 歸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퇴계 政治道義論의 기본입장이다.

그러므로 爲政의 目的은 仁德을 국가에 미치게 하고 後世에 흐르게 하는 데 있다. 聖人の 능사가 여기에서 더할 수 없으니 참으로 高遠하여 거의 미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임금이 위에서 명령을 세워서 亂을 治로 돌이키는 데는 다만 마음하나에 있을 뿐이니, 마음 하나가 善을 향해 쉬지 않고 힘써 나가면 곧 정치에 베풀어져 勢道가 一變하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治者로서의 信義가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이는 下民들과의 실질적인 紐帶感을 형성하는 內的 基盤일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정치의식을 통합하는 힘이다.⁵⁵⁾ 그래서 군주의 齊家·治國·平天下의 근본이 모두 修身에 있는 것이다. 군주는 聖君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국가의 模範이 되어야 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

V. 結論: 退溪의 政治道義 實現과 그 現代的 意義

퇴계의 聖學十圖는 바로 聖君之學으로서 理想的인 君主像을 그린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仁政이다. 그의 聖君政治는 仁義道德의 구체적 실천을 통한 治者自身の 완성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天命의 주체적 자각을 전제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天理에의 확신으로 절대적 의지가 작용한다. 天理의 추구가 진실되기 위해서는 오직 군주 자신의 知的 力量이 그 만큼 深化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君王自身은 異端에 의혹되지 않고 聖學의 道術에 투철할 것과 仁孝의 人間愛의 自身涵養 및 부단한 自己省察의 지속성 등을 갖추어야

55) 上揭書, “善醫者 不視人之瘠肥 察其脈之病否 善計天下者 不視天下之安危 察其紀綱之理亂”

56) 金吉煥, 「東洋倫理思想」, (서울: 一志社, 1981), p.46.

한다. 그래서 퇴계가 君德을 保養하는 길로 敬을 강조한 점은 매우 주목된다. 治亂의 분기점을 道治如何에 두고 있음을 볼 때, 私心除去는 道治實現의 긴요한 핵심이며, 政事에 임하는 선행조건인 것으로 미루어진다.

가치질서가 확립되어야 觀念과 思考에 질서가 서게 되고 관념과 사고에 질서가 서야 행동에 正當性이 있게 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이 가치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는 시대가 부담해야 할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本末이 顛倒된 현실속에서 사회통합이나 민족통합의 이념을 상실한 채 跛行的인 民主化를 謳歌하고 있으며 물질위주로 만연되는 사회, 무조건 외래문화의 수용만을 주로 삼고 있다. 이 같이 眩亂한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확립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퇴계는 인간의 內面的 誠實을 위한 爲己之學을 말하였다. 일에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과연 人欲을 버리고 天理를 따르는 純粹性을 지키느냐, 과연 현실의 不合理를 合理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성실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느냐에 있다. 오늘의 민주질서 아래일수록 正義와 紀綱이 바로 서서 진리를 信奉하는 힘에 의하여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대정치의 특징은 개인이나 사회의 政治化에 대응해서 정치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정치의 목적보다 수단이 앞선 人間의 政治化에서 연유되는 현대정치의 短處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가 바로 修己에서 시작되어 남을 바르게 한다는 治人に 眞意가 있다고 할 때, 퇴계가 주장하는 政治의 人間化의 再吟味가 필요한 것이다. 퇴계의 政治意識은 정치과정에서 爲政者를 포함한 國政全般에 관하여 是非와 正邪·曲直의 본질성을 밝힘으로써 정치운영의 활력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겠다.

그래서 퇴계는 근본적으로 統治에 있어서 인간의 內面的인 道德性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統治란 第一義의으로 통치자의 修身이며, 또 이와같은 통치자의 修身을 기초로 하는 被治者의 敎化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법칙의 문제 다시말해 지금의 것을 개혁하고 옛 것을 스승으로 하는 것과 같은 制度改革과 같은 것은 末이라고 하여 第二義的인 의미밖에는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정치의 근본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간의 內面的 省察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內面的인 省察이 곧 정치도 아니며, 그것만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비현실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도덕의 主體性을 깊이 통찰할 수 있었던 퇴계의 學見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으나 사회적인 문제가 一個人(王)의 道德的 感化나 誠實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사회제도에서는 王의 精神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퇴계는 굳게 믿고 있었고 그것이 또한 時代의 限界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難點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그 現代的 意義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퇴계의 聖學十圖에는 治政의 道理가 잘 드러나 있어, 정치에 임하는 治者自身들의 이념과 실천적 자세를 정립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敬을 통한 道德的 嚴肅主義의 理想이 없이는 道義가 무너져 가고 理想없는 현실처방의 반복. 순환속에서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 없는 현실사회의 無方向性에 대한 制動力은 영원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格物致知로써 참다운 善을 밝히고 誠意 正心으로써 참된 修養을 하여 밖으로 도덕정치가 보편적인 것임을 느끼며, 敬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까지 현대문명을 提高시킬 책임이 모든 知識人과 社會指導層 人士들에게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爲政者 개개인의 道德的 省察과 實踐을 강조하는 퇴계의 政治道義論은 자율적인 도덕성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접근방법이며, 治者의 自己修養을 위한 효과적인 指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要諦는 인간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고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적극 제한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도덕의 정치 혹은 평화의 정치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道德은 곧 사람을 구속한다거나, 도덕적인 인간은 사회적으로 無氣力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상 도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여 완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협동적인 一員으로 활동하게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주체적인 권리의식을 지니고 정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을 때는 설사 한 때 그 政治가 誤導되어 방향을 잃더라도 그것은 쉽사리 復元되고 治癒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퇴계에게서 보이고 있는 道德主義에 대한 집념은 현실에 대한 當爲로서 현실을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규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積極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聖學十圖가 昨今の 政治現象을 改善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意義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聖學十圖는 한갓 國王에게 올린 劄子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층에 있어서도 典範으로 삼을 만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國民의 道義를 善揚하는 데에 좋은 指針으로 될 만하다.